

People & Life

김병일 국학진흥원장 필암서원 강연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하서 김인후(1510~1560) 선생을 배향한 장성 필암서원이 오는 23일 춘향제를 거행한다. 이날 초헌관을 맡은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전 기획예산처장관·사진)은 제를 마친 뒤 '선현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강론한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17일 특강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오는 17일 오후 2시30분 광주 서구 쌍촌동 웨딩의 전당·Y에서 '희망을 싣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포럼, 사람과 사람들'(이사장 박광순)의 초청으로 특강에 나서며 박 상임이사는 변호사이자 '아름다운 가게'를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회적 기업가이기도 하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광주 방문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오전 연두순시를 위해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를 방문한 데 이어, 광주 서구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시설인 희망의 집 주건보호센터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영옥 전남대교수 유아교육학회 학술상



김영옥 전남대 교수(유아교육과 학과장)가 최근 '한국열린 유아교육학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학회 측은 "김 교수가 그동안 학문적 업적에 뛰어났고 학구적 수업을 보여 우리나라와 세계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전남대 농업박람회

명예대회장 김천주씨

홍보대사에 최유나씨



전남도는 올해 10월 열리는 '제10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명예대회장에 김천주씨를 명예대회장, 최유나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김 명예대회장은 우리 농산물 홍보와 소비촉진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홍보대사로 선정된 최씨는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농업박람회 뿐만 아니라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어려운 법률지식 광주시청에 문의하세요”

‘수요 무료 법률 상담’ 진행 박승일 송무담당

“크고 작은 거래나 고소·고발로 인한 생활 민원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민들을 위해 그동안 배운 법률 지식을 아낌없이 나눌 생각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9일부터 개설한 ‘수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승일(42) 송무담당은 “찾아오는 시민들이 얼마나 법률 서비스에 목말라 했는지 눈빛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며 성실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을 약속했다. 그는 첫날 무료 법률상담에서 온 종일 상담자들의 애기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상담을 해온 시민은 11명. 광주시청 법무담당관을 직접 방문한 6명에게 1인당

1시간 30분 정도 얘기를 듣고 세세한 법률적 조언을 해줬다. 5명은 전화로 상담해줬다. “보통 변호사들이 상담하면 시간당 돈을 받는데, 무료법률상담에서는 급전적 부담없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물어볼 수 있어서 마음을 놓는 것 같아요. 게다가 찾아오신 분들이 고령자들이어서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날 시청을 찾은 상담자 6명 중 85세가 1명, 74세가 3명으로 70세 이상 고령자가 4명이나 됐고 모두 광산구와 서구에서 거주하는 주민이었다. 고령자들이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데다 광주시법원이 있는 동구를 중심으로 변호사들이 몰려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박 담당은 분석했다.

지역방송기자를 거쳐 지난 2003년 45회 사법고시에 합격, 5년간 변호사로 일한 박 담당은 “공직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난해 광주시에 지원했는데, 덜컥 합격해 2년째 근무하고 있다”며 “기자로 일하면서 배웠던 폭 넓은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전문지식이 상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담당은 부동산 거래 및 등기 문제나 고소·고발 사항에 대해 문의해 온 상담자들에게 간단한 법률지식은 가르쳐주고, 기일이 걸릴 것 같은 복잡한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고 있다.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무료법률상담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법률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힘을 쓸 계획입니다.” 자세한 법률상담 문의 062-613-2770.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자 최고수’ 된 열다섯 여중생

문화중 3년 재지민양 ‘사범’시험 합격

어른에게도 어려운 도전인 한자 급수 ‘사범’ 시험에 열 다섯 살 여중생이 합격했다. 광주 문화중 3년 재지민양이 14일 발표된 대한검정회가 주최 한자 급수자격검정 사범급 시험 50회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사범급은 한자급수 15급 가운데 최고 등급으로 5000자 정도의 한자를 읽고 쓰는 것은 물론 4서(논어, 맹자, 대학, 중용), 5경(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을 통틀어 이해하고 번역까지 할 수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성인들은 물론 한문을 전공하는 대학생도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률 또한 10% 내외에 그치고 있다. 평소 한문에 관심이 컸던 아버지 채수동(59·무역업)씨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문공부

를 시작한 재양은 이후 꾸준히 공부해 6~1급을 차례로 취득했다. 이번 사범급 자격증 취득은 4년의 도전 끝에 안은 영광이다. 재양은 앞서 지난 2009년에는 어문회 한문 1급 최우수성적으로 ‘난정 장학금’을 받았고, 성균관대와 어문회가 주최하는 한자경시대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재양은 “글자마다 삶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한자의 매력에 빠져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며 “4서 5경에 나오는 옛 상현들의 가르침을 읽으며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많이 배웠다.” 집안의 막내로 늦둥이인 재양은 논어에 나오는 ‘수육정이공부지, 자욕효이친부대’(樹欲靜而風不止, 자욕효이친부대) 나무는 가만히 있거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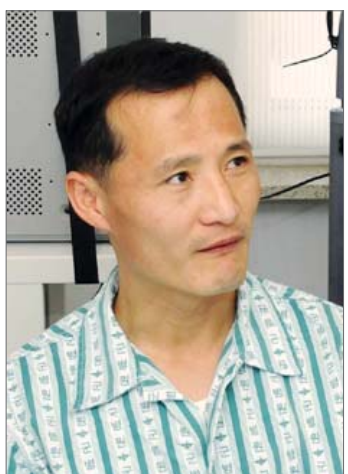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효심도 깊다. 재양은 “앞으로 중어중문학과를 목표로 공부해 중국문화와 문물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공군 변우성 원사 두번째 골수기증

4년만에 생면부지 소녀에 또 이식 ‘화제’

4년 전 생면부지의 백혈병 환자 에게 골수를 이식해준 공군 부사관이 어린 소녀에게 또다시 골수를 기증했다. 1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이 부대 장비정비대대 변우성(44) 원사가 지난 14일 백혈병을 앓고 있는 7세 소녀에게 자신의 조혈모세포(골수)를 이식했다. 변 원사는 7세의 소녀가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흔쾌히 골수 이식을 결정했다. 변 원사는 제 아이를 둔 아버지이자 항공기 부식 방지를 담당하는 군인으로서 ‘사람의 골수 기증’을 실천해왔다.

변 원사의 골수 기증은 지난 2007년 이후 두 번째로, 한 사람이 두 차례나 골수를 이식해준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꼽힌다. 골수 이식을 위한 ‘조직 적합성 항원(Human Leukocyte Antigen)’의 일치 사례는 1만명에 1명 꼴로 일치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변 원사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생면부지의 백혈병 환자를 살리기 위해 첫 수술대에 올랐다. 1998년 한국조혈모세포협회 측에 골수기증 희망 의사를 밝힌 것을 10여년 만에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변 원사는 “두 번째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사실이



지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 소녀가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소외이웃에 매달 100만원”

구제길 금호장례식장대표 1년간 후원 약정

“복지사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구제길(44) 금호장례식장 대표가 최근 광주 서구 ‘천양의 동구 사랑탑 쌓기’에 다달이 100만원을 1년 동안 후원하겠다고 약정했다.

‘천양의 동구 사랑탑 쌓기’는 주민들과, 공무원 및 기관·단체가 기금을 마련해 관내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나눔사업이다. 구 대표의 이웃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 대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쌀을 기증해 이



웃사랑을 몸소 실천해왔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섰다. 구 대표는 “많은 사람이 십시일반 성의를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뜻이 좋았다”고 말했다. ‘천양의 동구 사랑탑 쌓기’에 대한 문의는 동구청 복지사업과 복지서비스팀(608-2401.2404)으로 하면 된다. /양수현기자 yang@

호남대 올해의 ‘참교육대상’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사진)가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선정하는 ‘2011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을 수상한다. (사)한국언론인연합회는 15일 ‘2011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창의 교육 부문 수상기관으로 호남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상은 (사)한국언론인연합회가 교육과학기술부 후원으로 대한민국의 교육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해 국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학문적 가치 창조, 교육정책의 창의성과 개혁성, 글로벌 경쟁력 등을 엄



정하게 평가해 부문별 수상기관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호남대는 잘 가르쳐서 취업까지 책임지는 ‘교육감동 대학’의 비전실현을 통해 ‘교육중심대학 Top 10’ 진입의 목표를 세우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360도 방향 맞춤형 진로지도’를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졸업생들의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완주 전통한지마을

승지관장에 김혜미자씨



전북 완주군은 전통한지 마을로 복원된 소양면 신원리 ‘대승한지마을’의 한지공예품 전시관인 승지관에 한지공예전문가 김혜미자(70) 전주전통한지공예연구회장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주기전대학 문화전통과 교수를 역임한 김 관장은 현재 전국한지공예대전 운영위원과 대한민국한지대전 심사위원, 완주군 향토산업 한지공예대학 감사 등을 맡고 있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환측
▲김진오(취담스 대표이사)·주영미씨 장남 대용군 신병수(건설업)·김형미씨 장녀 현정양=20일(일) 낮 12시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동창·동문회
▲조선대학교 조우회 월례회(회장 민경채)=18일(금) 오후 6시 영광비 식당. 010-8506-7346.
▲동신고 17회 동창회(회장 정재근) 졸업 25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성열) 사무실 현판식=19일(토) 오후 7시 동구 수기동 13-8번지. 010-7573-0000.
향우회
▲암해정씨 광주·전남총친회 총회 및 정관회 회의(회장 정중주)=19일(토) 오전 10시30분 금남로 카톨릭회관010-2409-966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자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모집
▲재광 순창 향우회 회원=40~55세 참신하고 훌륭한 젊은 회원. 019-603-9515(김진근), 010-6610-5417(김수열).
▲이화송유치원=친환경고급자재 시공(편백나무 교실, 강당, 요리실습실, 사계절 수영장) 5~7세 유아 수시모집. 진월동 리제 3차 아파트 옆. 062-367-0851~3.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은 광주 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국악지도사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화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디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스키동호회 설천클럽 회원=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한마음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장구, 징, 판소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기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이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교실 ‘참 고운소리’ 회원=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10-9886-9775.
▲장애인 체육 동호인=광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

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www.gjsad.or.kr), 전화 상담후 신청. 062-384-5544.
▲놀이매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부음
▲최만목씨 별세 훈장(C&M 산업개발 사장)·문기(서울시환경사업본부)·용대(서울 동대문구청)·영국씨 부친상=발인 16일(수) 그린장례식장 2층 9분향소. 062-250-4409.
▲주막래씨 별세 박준호·기두·준대·연순·미순씨 모친상=발인 16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동호씨 별세 영태·영수·영진·운자·정자씨 부친상=발인 16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박규현씨 별세 영찬·영도·영부친상=발인 15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박규현씨 별세 영찬·영도·영부친상=발인 15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故 人 之 冥 福 을 빕니다
故 人 崔 萬 福 님(남/71세)
故 人 崔 萬 福 님(남/80세)
故 人 崔 萬 福 님(남/82세)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062)250-4455

故 人 之 冥 福 을 빕니다
故 人 崔 萬 福 님(남/76세)
故 人 崔 萬 福 님(남/76세)
故 人 崔 萬 福 님(남/76세)
금호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